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또 오늘이 오겠느냐”

황벽사3



황벽 선사 묘탑으로 가는 논둑길과 황벽촌 농가들.

청년에게 황벽산에 황벽나무가 있는지 물었지만 모른다. 황벽나무는 오동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 실제로 황벽사 주변에는 황벽나무가 없다. 아마도 황벽 선사가 이곳에 주석하면서 고향의 황벽산 이름을 빌려왔는지도 모르겠다.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난 길을 조금 걸어가자 농가가 몇 채 보인다. 농가 앞은 계단식 논들이다. 황벽 선사의 묘탑은 농가 맞은편 산자락에 있다고 한다. 순례 일행은 청년이 안내하는 대로 논둑길을 걸어가면서 상념에 젖는다. 논둑길에는 절에서 나왔음직한 반듯한 기단석들이 듬성듬성 방치돼 있다. 옛 황벽사의 자취들이 분명하다. 문득 황벽 선사 묘탑을 찾아가는 나는 무상감에 몸서리친다.

이전에 왔던 어느 비구니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논둑길을 걸었다고 하고, 어느 비구스님은 몇 십 년 만에 의문이 풀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건너갔다고 한다. 지금 나는 가랑비 같은 상념을 털고 눈을 똑바로 뜬 채 걷고 있다. 황벽촌의 논둑길 여기저기에 동글동글한 말뚝들이 보인다. 눈을 '말뚝말뚝' 뜨고 있다는 문장의 의태어가 말뚝의 모습에서 생겨난 것일까.

황벽 선사가 승당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좌선하고 있던 임제가 눈을 감아버렸다. 이에 황벽 선사는 바로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임제가 방장실로 뒤따라가 사과했다.

“황송합니다.”

황벽 선사가 수좌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비록 절지만 이 일을 알고 있군.”

이 일(此事)이란 불법의 근본을 뜻했다. 수좌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노스님께서는 발꿈치를 땅에 딛지도 않고 이 젊은 사람을 증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을 땅에 딛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 속담으로 확실한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었다. 수좌의 말에 황벽 선사는 자신의 입을 손바닥으로 쳤다. 말을 함부로 했다는 몸짓이니 실수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수좌가 말했다.

“아셨으면 됐습니다.”

황벽 선사가 선방에서 졸고 있는 임제를 보고는 주장자로 좌선상(坐禪床) 판자를 한 번 쳤다. 임제는 눈을 뜨고 황벽 선사를 보더니 다시 졸았다. 그러자 황벽 선사는 또 다시 좌선상 판자를 쳤다. 그리고는 웃간(上間)에 있는 수좌에게 가서 말했다.

“아랫간(下間)의 젊은 후배는 좌선하고 있는데 수좌는 여기 앉아 망상만 일으키고 있나니, 그래서 무엇을 하겠는가.”

“노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에 황벽 선사가 좌선상 판자를 한 번 치고는 나가버렸다.

황벽 선사, 황제의 뺨 쳐 단체선사 호를 하사받다

어느새 임제는 부방장 위치한 수좌의 경지를 넘어 서고 있었다. 수좌가 번번이 젊은 임제 앞에서 어리둥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선화를 보면 어느 새 임제는 스승 황벽 선사 앞에서 할을 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황벽 선사가 부엌으로 들어가 공양주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는가.”

“대중스님들이 먹을 쌀 속에서 티나 돌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두 섬 닷 말을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오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황벽 선사는 공양주를 때렸다. 공양주가 아직도 밥을 묻는 선문답인 줄 모르고 때문이었다. 이 일을 공양주가 임제에게 말했다. 그러자 임제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해 노스님과 선문답을 하리라.”

이윽고 임제가 황벽 선사 옆에 다가서자 황벽 선사가 부엌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러자 임제가 말했다.

“공양주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대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뒤 임제가 황벽 선사에게 말했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임제는 쌀을 단순한 쌀로 보지 않고 자성(自性)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많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황벽 선사가 말했다.

“왜 이렇게 이르지 않는가. '내일 한 번 더 먹습니다' 라고 말일세.”

“무슨 내일을 들먹일 게 있습니까. 바로 지금 잡



선지식을 눈앞에 두고 헛되이 행각하지 말라 경책하는 황벽 선사의 모습.

수시지요.”

그러면서 뺨을 올려붙이려고 하니 황벽 선사가 말했다.

“이 마진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 구나!”

이에 임제는 바로 악! 하고 고함을 치고 나가버렸다.

임제를 주시해 왔던 황벽 선사는 어느 날 대중스님들에게 설법했다.

“내가 대적(大寂: 마조) 문하에서 수행할 때 함께 공부했던 도반으로 대우(大愚)라는 분이 계셨다. 이분은 일찍부터 제방을 행각하여 법안(法眼)이 매우 고명하셨다. 지금은 산중에 계시는데 대중생활보다는 초막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신다. 나와 헤어질 때 그분이 간곡히 부탁하기를 ‘훗날 근기가 뛰어난 수행자를 만나거든 나를 찾아보도록 얘기해주시오’ 하였느니라.”

임제는 자신에게 한 말씀을 금세 알아차리고 고안현(高安縣) 깊은 산중에 있는 대우 선사를 찾아다니게 된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몇 번을 잠방한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 황벽과 대우라는 걸출한 두 선사가 임제를 대오게 했던 것이다.

산자락으로 들어가 희미한 길을 조금 더듬어 나가자 대숲 속에 두 개의 묘탑이 보인다. 먼저 보인 부도에는 벽랑지탑(壁朗之塔)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벽랑 선사 탑인데 벽랑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안내해준 청년도 우물쭈물하고 만다.

두 번째 보인 묘탑이 바로 순례 일행이 찾던 황벽

선사 묘탑이다. 탑에는 단제운조탑(斷際運祖塔)이라고 새겨져 있다. 조탑(祖塔)이란 조사탑(祖師塔)의 준말일 것이다. 그리고 운(運)은 희운(希運)을 줄인 법명일 것이다. 그런데 단제(斷際)란 별호나 시호 같은 느낌이 들고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다. 속소로 돌아와 알아보니 과연 흥미로운 연인이 깃들어 있다.

당나라 선종은 연호를 대중(大中)이라 했다. 그래서 선종을 대중천자(大中天子)라고도 불렀다. 대중천자가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조카인 무종의 핏발을 피해 한때 출가하여 황제의 제자가 된 적이 있었다. 이후 대중 사미는 연관 제안국사 문하에서 서기(書記)를 보았다. 그때 황벽은 연관 문하에서 수좌로 있었다. 하루는 황벽이 예불을 보고 있는데 대중 사미가 물었다.

“부처나 법에서 찾지 않고 예배하여 무엇을 찾고 있으.”

이에 황벽 수좌가 말했다.

“부처나 법은 물론 대중 사미한테서도 찾지 않고 항상 이렇게 절을 하고 있으.”

“절은 해서 무엇을 찾으려 하오.”

절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투로 말하자 황벽 수좌가 대중 사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대중 사미는 ‘이런 난폭한 자가!’ 라고 하며 말이 빠졌다. 그러자 황벽 수좌는 연달아 두 번을 더 때렸다.

“이런 경우에는 난폭하다느니 어쩌니 하고 따질 때가 못 되오.”

이후 대중 사미는 무종이 죽자 환속하여 황제로 즉위하였는데, 황벽 수좌에게 세 번 뺨을 맞고 선리

(禪理)를 알게 된 고마움을 잊지 못하여 수행사문(巖行沙門; 난폭한 사문)이란 호를 하사했다. 그러자 즉시 상공 배후가 간했다.

“폐하께 황벽 선사가 세 번 손을 댄 것은 폐하의 삼제윤회(三際輪廻)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삼제란 삼세(三世)와 같은 말이었다. 선종은 배후의 주청을 들어 호를 다시 단체 선사라고 고쳐 내려주었다. 상공 배후가 선기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황벽 선사의 호가 접잡지 못하게 두고두고 ‘강패중’ 정도가 될 뻔했던 사건이었다.

선사의 묘탑을 보고 있자니 사자후가 들리는 듯하다.

“너희들은 모조리 술지게미를 먹는 놈들이다. 행각을 한답시고 남들의 비웃음이나 사면서 안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또 오늘이 오겠느냐. 이 큰 당나라 땅에 선사(禪師)가 없음을 너희들은 모르나.”

선지식을 눈앞에 두고 헛되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씀이다. 묘탑 주위에 선대나무들이 죽비가 되어 나를 후려칠 것만 같다. 황벽 선사의 사자후를 듣게 해준 청년이 세상 고맙다.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사려하려고 하자 기겁을 한다. 대숲에 일렁이는 황벽촌의 아침 햇살이 청년의 마음처럼 순결하고 아름답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칼럼 '다행' 아제 여행사

다음검색 "아제 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p>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동참금 : 1,690,000원 / 1인 	<p>중국 강오선종사찰 8일 (11분선사)</p> <p>남약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양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명회 / 석두회현 / 동산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 들앉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p>불탑의 나라 미얀마 / 방콕 8일</p> <p>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방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 2011년 4월 14일 동참금 : 1,990,000원
<p>대혜종교 / 고희원묘선사 천축산 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 3월 29일 (1차), 5월 21일 (2차) 특전 : 890,000원 / 1인 	<p>*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코르왓트, 비푸른사원의 전설 - 3월 11일 / 990,000 	<p>* 실크로드 & 불교로드 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령석굴 - 트루판 - 돈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 / 1인
<p>*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 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도 - 아미산 - 낙산대불 - 무상선사주석지 - 4월 6일 990,000 	<p>* 구하산 / 보타산 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 	

부탄을 체험하는 여행사

의말라야 온든왕국 부탄/다갈링 9일

차의지방 다갈링 - 파로 - 수도 팀푸 - 여왕궁 푸니카 - 파드마삼바바 수행동굴 탁석

출발 : 4/7, 5/12 (월, 목 출발가능)
3,090,000 / 1인

홍백이제 입원장소(http://www.ajetur.co.kr/)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아티샤 성인들의 이야기

great adventure!!

티벳으로 떠나는 순례

(티베트 / 아눔영차)

- 3월 23일 출발 - 1,790,000
- 4월 6일 출발 - 1,690,000
- 5월 15일 출발 - 1,890,000

지구상 최고도를 걸리는 정경 교역 **하늘 열차**

달라이라마 정교원의 궁 **포탈리궁**